



국제로타리3650지구, (사)K문화독립군과 MOU체결 올바른 가치의 회복과 미래지향적 가치교육을 위한 문화사업에 적극 협력



글. 지구 문화봉사위원장 주세페 **김동규**
서울강북로타리클럽

국제로타리 3650지구(총재 장세호)와 사단법인 K문화독립군(대표 김동규)이 지난 7월 26일 남산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MOU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K문화독립군'은 다양하고 창의적인 인문적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주독립 정신과 나라사랑의 혼을 일깨우고 나아가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보훈처 산하의 사단법인이다.

그 첫 행보로 지난 7월 5일 여의도KBS홀에서 관객 3200명을 대상으로 잊혀졌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의 <기업가 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시 알리는 창작뮤지컬 <폐치카>를 성공적으로 공연하였다. 이번 공연에는 서울과 경기권에서 청소년 약 2천명이 초대되어 다양한 사회저명인사들과 함께 안중근 하얼빈 의거의 실질적 배후이며 후원자였던 한국의 카네기 최재형을 이야기를 뮤지컬로 관람하였다.



이번 공연을 위하여 3650지구에서는 랑코리아 위성클럽의 전문연주자들과 물푸레리틀렉트클럽 합창단(단장:경희수)이 공연에 직접 출연하여 재능봉사를 하였고, 장세호 총재를 비롯하여 로타랙트 40여명과 각 클럽에서 추천한 50여명의 청소년들이 공연에 초대되었으며 특별히 (주)한국파파존스(대표이사 서창우 지구 연수위원장)가 100여명의 공연 출연자 전원에게 피자과 치킨을 제공하여 훈훈함이 더해졌습니다. 'K문화독립군'이 보훈처로부터 인가를 받기까지는 서울강북로타리클럽 회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공연팀으로 구성된 랑코리아위성클럽이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K문화독립군은 국제로타리3650지구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가치의 회복과 미래지향적 가치교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함께하게 됩니다. 🍷

1. 한국 고유의 정신세계와 정서를 스스로 찾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가치를 세우는데 함께한다.
2. 세계적문화의 이해와 세계평화를 위하여 실천적 리더십을 기르는 가치교육에 함께한다.
3. 올바른 가치관, 정확한 역사관, 투철한 국가관, 폭넓은 세계관을 계몽하는 문화예술 콘텐츠의 보급 확산에 협력한다.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의 뮤지컬 <페치카> 관람 소감

김동규, 김구미교(서울강북RC) 듀오아임의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을 그린 뮤지컬 <페치카> 공연에 초청, 7월 5일 KBS홀



뮤지컬을 보러간 경험이 없어서 페치카 뮤지컬에 초대해주신다는 공지를 받자마자 바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월에 신세대워크샵에서 보여주셨던 무대를 보며 감탄을 했었는데 페치카 뮤지컬 역시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었는데 이번 공연을 보며 훌륭한 독립운동가 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마음에 새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세페김 선생님과 김구미교 선생님이 독립운동가분들을 알리기 위해 얼마나 열심히 땀흘리시며 준비하셨는지 짐작할 수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서울남산 로타랙트 회장 박윤주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에 정말 공감을 하면서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독립운동가에 대해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사실에 부끄러웠고, 또 그분들을 위해 공연을 기획하고 시행하시는 주세페 김, 김구미교 부부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일을 하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우리 지구 로타리안이라는 사실도 너무나 자랑스롭습니다. 저도 이번 뮤지컬을 계기로 역사를 더 열심히 공부해 부끄럽지 않은 로타랙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 서울남산 로타랙트 부회장 김아현

콘서트를 관람하기 전까지 사실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안중근 의사만 대표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콘서트도 안중근의사의 시대라고만 배경설명을 들었어서 안중근 의사에 관한 내용인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뮤지컬 관람을 통해 페치카라는 안중근의사에 비해 덜 알려지긴 했지만 누구보다도 뒤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던 최재형 선생 같은 분을 알게 되어서 의미가 컸던 것 같다. 또한 뮤지컬이라는 형식을 통해 그러한 사실과 그분이 하셨던 독립운동, 교육지원활동 등을 좀 더 재밌게 알 수 있었다. 역사 뒤에서 열심히 노력하셨던 페치카라는, 또 그분 이외의 다른분들까지 이러한 뮤지컬을 통해 잊지 않고 기릴 수 있고 그분들의 이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뜻깊은 뮤지컬인것 같고, 또 그러한 뜻깊은 활동을 로타리안들이 기획하신다는게 너무 자랑스럽고 뿌듯했던 것 같다.

글. 덕성 로타랙트 회장 황모빈